

[기획] >> 5면
기숙사식 운영 문제

[기획] >> 7면
우리학교 시설 낙후화 문제

[사회] >> 8면
새만금 챔버리

[인물] >> 12면
김원석 아나운서를 만나다



졸업학점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해선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학교 학생들은 타 학교 대비 높은 졸업학점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와 시간여유·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학교 졸업학점 축소 요구의 배경 및 현황△ 높은 졸업 학점에 대한 엇갈린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이지윤 기자 07jiyoon@hufs.ac.kr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미취업자를 위한 잡매칭 프로그램' 운영해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이번 해 1학기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미취업자를 위한 잡매칭 프로그램(이하 잡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에 현재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50명의 참가자 중 18명의 인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예정 및 진학 등의 사항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이하 진취센터)는 졸업생과 지역 청년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잡매칭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기업분석△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채용공고 등을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1:1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중단됐던 잡매칭 프로그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개돼 40%의 취업성공률이라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A씨는 "대기 없이 전담 컨설턴트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

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후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이번 해 하반기에도 '챗GPT(Chat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 방안' 등 맞춤형 온라인 특강과 1:1 컨설팅으로 구성된 잡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의 취업 서비스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우리학교 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취업 장려 프로그램 구성은 많은 학생들의 진로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진취센터와 현장 실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진로 탐색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경기도 용인특례시 지역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민△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오건 기자 07ogun@hufs.ac.kr

우리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세미오시스 여름학교 개최해

우리학교 세미오시스(SEMIOSIS) 연구센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세미오시스 여름학교를 개최했다. 세미오시스 여름학교는 '세미오시스 인문학'이라는 큰 틀에서 학문 간의 대화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교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오시스 여름학교는 지난해 세미오시스 문화 비평교실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 기호와 포스트 인문학적 상상'이라는 주제로 총 15개의 강좌와 3개의 열린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포스트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1일 차엔 등록 및 개강식으로 시작해 '문화 현상과 관찰'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교수진의 강연과 참가자 간의 토론을 통해 문화에 대한 상상과 사유의 문제를 논의했다. 2일 차엔 '문화 해석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 후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관계성과 역동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

졌다. 특히 '수어와 문화적 존재로서의 농인'과 '케이팝(K-POP) 패창 문화의 음악 인류학적 이해' 강좌에선 수어 통역이 제공됐다. 마지막 날엔 '문화 변동과 상상'이라는 주제 아래 △강연△종합토론 순으로 디지털 문화와 포스트 휴먼의 문제를 다뤘다. 이후 시상식을 끝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한편 우리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는 국내외 어문학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학교의 언어연구소와 외국문화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물적·인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국내 및 국제 저명 학술지 발행△국내 및 국제 학술 대회 및 초청 강연 개최△세미오시스 학교 운영△학술 논문 및 총서를 통한 연구 성과 창출 등 다양한 학술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 담론 창출을 목표로 포스트 인문학을 선도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학기중 외대 렌즈 증정 EVENT

오직 외대에서만

AVEO LENS Free Sample

아베오렌즈
내 눈을 부탁해!
영국 프리미엄 렌즈

아베오렌즈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 콘택트렌즈 브랜드이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원데이, 2주용, 한달용 렌즈를 처음 선보인 이후, 현재 전국의 600여개 아베오렌즈 취급 인점원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 렌즈 증정 이벤트 ...

아베오밴

#인증샷

#해시태그

올리고

#렌즈득템!

❤️ 1,000K LIKE

#아베오 #아베오렌즈 #아베오밴

기간 학기 중 **장소** 교내 주차장

*아베오 렌즈 공식 계정 (@aveovisionkr_optic) 팔로우, 태그필수!

#아베오 #아베오렌즈 #아베오밴

우리학교, HD한국조선해양과 글로벌 지역 전문 인력 양성 위한 협약 체결해

지난달 5일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HD한국조선해양과 외국어·글로벌 특화 인력 채용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엔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이하 가 부회장)△김민정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남상훈 HD현대중공업 부사장△박경은 홍보실장△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오종진 대외협력처장△이윤웅 사업지원처장△장태엽 재무·대외부총장△정준기 HD한국조선해양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신사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 공동개발△외국어·글로벌 특화 인력 채용△채용연계형 표준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HD한국조선해양 임직원 대상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HD한국조선해양 직장 외국인 대상 교안 및 자료 번역 감수와 통역 지원△HD한국조선해양 직장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지원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에선 채용연계형 표준현장실습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우리학교 재학생에게 현장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외국어 전공자 공개 채용 트랙을 마련해 연간 30명의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일정 인원을 정



▲우리학교와 HD한국조선해양과 업무협약 체결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규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소식에 최유진(사회·미디어 21) 씨는 “우리학교는 외국어에 특화된 대학으로 어문계열 학과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처럼 우리학교가 기업과 협력

해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학교의 강점인 외국어·글로벌 분야 인재가 조선업 현장에서도 빼어난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우리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역학 자산을 HD한국조선해양과 공유해 양 기관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HD한국조선해양과 우리학교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또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위상을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와 HD한국조선해양 간 협약 체결 소식을 접한 황예찬(공과·산업경영 19) 씨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학교가 다른 기업과의 꾸준한 협력을 추진해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우리학교가 양질의 산학 관계망을 구성하고 미래 신사업 분야에 걸맞은 인재 양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건 기자 07ogun@hufs.ac.kr

우리학교, 재외동포협력센터와 공동으로 ‘2023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진행해

우리학교는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와 공동으로 ‘2023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를 진행했다. 재일동포 초등학생 약 7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대해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총 9박 10일에 걸쳐 치러진 이번 캠프는 △그룹 프로젝트△서울 시내 탐방△우리나라 음식 체험△직업 체험△초등학교 방문△태권도 수업 등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적·역사적 체험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전통악기와 화폐 등 이색적인 도구를 활용하거나 공기 놀이와 시장 놀이와 같은 전통 놀이를 접목해 우리나라 말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밖에도 킥 싸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소규모 운동을 개최해 서로 협력하며 교분을 쌓는 기회도 주어졌다. 또한 재일동포 인솔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국어 교수법 특강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후엔 △크립 어린이 과학관△돈의문 박물관 마을△잠실 롯데월드△한글 박물관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서울 시내를 탐방했다.

참가자는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캠프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전 연수



▲캠프에 참가한 재일동포 학생들의 모습 (출처: 전략홍보팀)

에 참여했다. 사전 연수는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21일△23일에 일본 관동·관서 지역 한글학교협의회와 주도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이뤄졌다. 입소식은 지난 7일 우리학교에서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이하 김 센터장) 환영사△김태성 우리학교 부총장 격려사△인솔 대표 교

사 답사△학생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입소식 말미엔 일본 현지 학부모의 응원 영상이 상영되면서 학생들의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행사의 총괄 책임을 맡은 김재욱 우리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이하 김 단장)은 입소식에서 “우리학교는 그동안 다양한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며 이번 캠프의 수행 기관으로 우리학교가 선정된 배경을 소개했다. 김 단장은 또한 “재외동포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능동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 기법을 활용한 역사·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참가자가 자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재일동포 참가자가 우리나라를 친근하게 느끼고 우리나라 학생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재일동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집중캠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송성윤 기자 06sysong@hufs.ac.kr

우리학교 GTEP 사업단, 방학 중 국내외에서 개최한 전시 행사 활동 참여해

우리학교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 사업단)이 지난달 4일부터 열린 국내외 전시회에 연이어 참가하면서 팀 전시회 활동을 전개했다. GTEP 사업단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식품전(SIAL)’과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지페어(G-FAIR) 아세안(ASEAN)+’에 참가해 무역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후엔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Kuala Lumpur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리는 ‘말레이시아 국제 음식 & 음료 무역 박람회 2023(Malaysian International Food & Beverage trade fair 2023)’(이하 MIFB)에 참가해 무역 관련 실무 경험을 쌓기도 했다.

MIFB는 매년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아·육류 식품△유제품△음료△제빵 제품△할랄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2만여 명의 국제 및 현지 사업가들이 참여해 각자의 △기술△상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사회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행사다. 이번

MIFB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3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2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했다. 우리학교 GTEP사업단은 이번 MIFB에서 △아아케이푸드(KK-FOOD)△연담△주성△편식공방 등 다양한 협력업체의 제품을 시연하고 전시 홍보 전략을 수립해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구매자 대상 상담을 진행했다. 우리학교 GTEP 사업단원인 김유리(통번역·태국어 20) 씨는 “국내가 아닌 해외를 무대 삼아 기업 간 무역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새로웠고 뜻깊은 시간으로 전시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GTEP 사업단은 △팔도밥상페어△2023 서울비엔스피릿쇼(2023 Seoul Bar & Spirit Show)△K-비건페어(K-Vegan Fair)△한가위 명절선물전△수원주류위크(Suwon Alcohol Week) 등 다수의 국내·외 전시회에 연달아 참가하면서 방학 중에도 무역 실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연아 기자 06znchung@hufs.ac.kr

우리학교, 교육부 주관 ‘초·중고 SW-AI 교육의 디지털새싹 캠프’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난달 우리학교 AI교육원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SW/AI 교육의 디지털새싹 캠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학교는 이번 하계방학 기간에 약 2천여 명의 경기도 권역 △다문화가정△정보 소외 계층△초·중·고 학생△학부모 및 강사 등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세분화해 최대 14개 과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모든 교과 수업에 디지털 소양 교육이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해 디지털새싹 캠프 주관기관으로 △경기관 14개 기관△경상권 10개 기관△서울·인천권 9개 기관△강원·충청권 8개 기관△호남·제주권 7개 기관 등 총 48개 기관이 선정됐다.

우리학교 여름 캠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돼 총 8가지 과정으로 운영됐다. 이번 캠프에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융합형 문제해결△컴퓨

팅 사고력으로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뉘며 △게임이랑 놀며 커지는 생각의 힘△내 몸을 활용한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미디어 기술△인공지능 아바타 기자단△AI 음악 추천 알고리즘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따라 기초·심화 과정으로 제공됐고 모든 체험은 대면으로 이뤄졌다. 또한 신청자 전원에게 우리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우리학교는 앞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봉사단을 활용한 수준 높은 ‘SW&AI 진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대학진로탐색캠프 사업 최종평가에서 중간 평가에 이어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돼 이번 ‘SW/AI 디지털새싹 캠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한 두일철 AI교육원 교수는 “앞으로도 대학 기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 소외자 예방에 이바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오건 기자 07og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 분	추가모집 전영
원서접수	2023. 6. 22(목) ~ 2023. 7. 10(월)
고사장 발표	2023. 7. 12(수) 14:00
면접전형	2023. 7. 15(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3. 7. 20(목) 14:00
등록금 납부	2023년 8월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전)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전보장정책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정치행정언론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출석(면접)지원 제한 대상, 해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원격시험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지원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전보장정책: 입학생 전원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 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3.09.25(월) ~ 10.11(수)	2023.11.06(월) ~ 11.22(수)
고사장 발표	10.18(수) 15:00	11.29(수) 15:00
면접전형	10.21(토) 10:00 예정	12.0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2(목) 15:00	12.14(목) 15:00
등록금 지급 납부	11.06(월) ~ 11.10(금)	12.18(월) ~ 12.22(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총원 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정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급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 외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한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가.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가. 재정중명세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교)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환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에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8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늦어지는 강의실 배정, 혼란스러운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강의실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들이 제기된다. 우리학교는 수강신청에 앞서 강의실이 배정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할 강의가 어떤 강의실에서 진행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수강신청 시 강의실 번호 표기 부재로 인한 불편함

수강신청 이전에 강의실이 배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어려움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생에 비해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글캠의 부지는 약 228만㎡로 68만평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지 곳곳에 강의실이 분포해 있다. 특히 글캠의 백년관에서 인문경상관까지의 거리는 약 998m로 네이버 지도 기준 도로로 약 21분이 소요된다. 강의실이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수강신청을 하거나 시간표를 계획하는 기간엔 강의실 위치를 알 수 없어 이전 학기 수업의 강의실 정보를 기반으로 추정해야 하기에 추후에 강의실이 확정된 후 이동시간이 부족할 경우 시간표를 재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강의실 사이의 거리가 먼 수업의 경우 미리 강의실 정보를 알지 못하면 시간표 계획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황찬일(국제지역·프랑스 18) 씨는 “시간표를 짤 때 강의실 위치를 알 수 없어 매번 고민을 하게 된다”며 “예상한 강의실과 달리 이동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시간표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강의실 정보가 공개된 시점에선 이미 수강신청이 종료된 이후이기에 시간표 수정이 필요한 학생은 수강정정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수강정원 초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설캠의 경우 글캠에 비해 교내 면적이 좁은편이기에 공간 시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

생들의 경우 강의실 간 이동거리가 멀다면 글캠 학생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설캠 내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두 건물은 사회과학관과 교수학습개발원이다. 두 건물 간 거리는 약 348m로 네이버 지도 기준 도보 시간은 6분 가량이 소요된다. 거동이 어려운 학생이 강의실을 벗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부가수단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부담이 되는 거리다. 강의실 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수 있다면 양 캠퍼스(이하 양캠) 학생들 모두 자신의 이동시간과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시간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수강신청 이후에 강의실이 배정되는 이유에 대해 유병헌 글캠 학생정보지원센터 과장은 “현재 강의 개수에 비해 강의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과가 강의 개설을 완료해야 그 이후에 강의실 배정을 할 수 있으나 강의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설학과 증가로 인해 강의 수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강 정원만 가지고 강의실을 배정하기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실제로 60명 정원인 강의를 위해 대형 강의실을 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수강신청 인원은 10명 미만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신설학과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강의 수요 예측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수강신청기간에 미리 강의실을 배정해 학생들에게 강의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일부 강좌들의 경우 폐강 및 교강

사 재배정 등의 사유로 강의실이 변동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수강신청 이전에 강의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비교적 효율적인 시간표 작성이 가능하다. 우리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강의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학사종합지원센터 측에 2학기 기준 지난 6월 말까지 강의 개설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의 사정에 의해 7월 말까지 강의 개설이 지연됐다. 강의 개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대규모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기반이 충분히 구축된다면 수강신청 전 강의실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실 정보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강의실 간 이동시간이 비교적 오래 소요되는 글캠 학생의 경우 연속적으로 강의를 수강하거나 강의 시간 사이에 다른 일정을 계획할 경우라면 수강신청에 앞서 강의실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시간표 구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만큼 우리학교가 수강신청과 관련된 학생들의 불편함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후속보도

학생회비의 이용가치, 인식과 상황은 개선됐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및 행사가 증가하며 학생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외대학보 1056호 기획기사에선 학생회비를 둘러싼 학생과 학생회간의 상반된

견해와 학생회비의 납부의 의의에 대해 알아봤다. 이에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학생회비에 대한 인식 및 현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자.

◆학생회비의 의의와 인식

지난 기사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에서 학생회비의 지출액과 사용처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점과 학생회비를 바라보는 학생들과 학생회간의 견해 차이를 보도했다. 학생회비는 학과별로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에 이르며 일부 학과의 경우 입학시에 4년치 학생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하기에 학생 개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엔 이전과 비교해 대면행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회비의 사용처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회비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학생회비 납부에 대해 망설이는 내용의 글이 종종 게재된다. 일부 학생들은 부담스러운 학생회비 금액과 학생회비 납부가 학과 활동 다양화에 기여할지 의문스럽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유의미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MT나 개강총회 등과 같이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도 금액을 지불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시험기간 간식사업의 경우에도 간식을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이 상이할 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나리나(국제지역·프랑스 20) 씨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과 납부한 학생 간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며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과생활 시 차별받는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주세연(사회·미디어

21) 씨는 “처음엔 학과 총무 및 재정국 관리자가 전부 선배들이기에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눈치가 보일 것 같아 납부했다”며 “그러나 실제로 학교생활을 해보니 학생회가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느껴져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학생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운영방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도는 과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감시와 노력

학생회비는 학교 운영 및 학생 복지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학과 학생회측에서도 학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1056호가 발행됐던 지난 2021년 마인어통번역과와 이탈리아어과는 코로나19 시기에 저조해진 학생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스비대면 선배와의 만남△취업 및 유학 관련 설명회 개최△학과 특색에 맞는 굿즈 제작 등의 행사를 기획해 약 90%에 이르는 학생회비 납부율을 달성했다. 또한 글캠 마인어통번역학과는 지난 2019년 기준 25만원이었던 학생회비를 18만원으로 낮추고 신입생에게 학생회비 안내문을 송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학과 활동△불투명한 사용 내역△학과별로 상이한 납부금액 등으로 인해 학생회비를 내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생회비 납부를 결정할 때 금액뿐만 아니라 자신이 납부한 학생회비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사용되는지를 주로 고려한다. 일

부 학과들에선 학과 회장들이 직접 나서서 분기별로 학생회비 사용처와 지출액을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학과 활동은 학생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학생회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다. 지난해 일부 학과들에서 재정감사 시기 학생회비 사적 사용 내역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가 됐던 △국제금융학과△산업경영공학과△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융합인재대학△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체코·슬로바키아어과는 각각 사과문 및 입장문을 게재하며 이후 학생회비의 투명한 사용을 약속했다. 해당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후 학생들은 먼저 나서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회 측에서도 학생회비를 투명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회비는 학과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상이하게 책정되며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일부 학과들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학생회비가 납부할만한 방향으로 운용되는 한 학생들은 학생회비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학생과 학생회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상호간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이뤄진다면 보다 바람직한 학생회비의 납부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졸업학점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 적절한 타협안을 찾기 위해선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높은 졸업이수학점 기준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불만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학과는 졸업을 위해선 134학점 이수를 요구한다. 특히 사범대학(이하 사범대)과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통번역대학(이하 통대)의 경우

졸업학점이 각각 140학점과 150학점으로 타 과 및 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간적 여유 문제△재정적 부담△학업 스트레스 등의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학교 졸업학점 축소 요구의 배경 및 현황 △높은 졸업 학점에 대한 엇갈린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졸업학점 축소 요구의 배경 및 현황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학교 에타에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논의가 대두된 배경은 강사법이 개정 되면서부터다. 강사법을 시행하게 되면 비용 증가로 인해 강사 감축과 함께 졸업학점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존재했다. 이후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사안이 본격적으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가장 높은 졸업학점을 요하는 학부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융인과 통대로 두 학부 모두 150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경우 이중전공을 하거나 비사범대 학생이 복수교직을 하는 경우 140~1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융인과 통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은 134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우리학교의 전공 이수학점도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서강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등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이수 학점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학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 학교들의 영어영문학과 졸업이수 학점은 이중전공 이수 시 본전공 기준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와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 36학점△건국대학교 40학점△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42학점△숙명여자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 45학점△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와 홍익대학교 50학점이다. 이에 반해 우리학교는 54학점으로 본전공의 경우 이중전공이나 단일전공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15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영역의 가장 낮은 졸업학점을 갖고 있는 학교와 비교하면 약 1.5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동국대는 이중전공 이수 시 본전공 이수 학점이 36학점으로 우리학교의 54학점과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며 서강대 또한 단일전공 이수 시 본전공 이수 학점이 48학점으로 우리학교의 70학점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학교의 졸업 이수학점 수치가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임을 파악할 수 있다.

◆높은 졸업 학점에 대한 엇갈린 입장

졸업학점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외대학보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졸업학점 축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졸업학점이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81.5%가 ‘그렇다’고 답했다. 졸업학점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론 △타 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 생각해서(95.5%)△졸업학점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어서(59.1%) 등의 의견이 존재했다. 졸업학점으로 인한 고충의 유형을 묻는 질문엔 시간 여유 문제 및 취업 부담(68.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재정적 부담(54.5%)과 학습의 질적 저하(50%) 또한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 재학생 A씨는 “들어야 하는 수업이 많아 학점 관리가 어려워 B+가 늘어나면서 4점 조종반대였던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졸업학점 축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묻는 질문엔 전공학점(73.7%)과 이중전공 학점(21.1%)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이는 학생들이 전공 학점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우리학교는 현행 졸업학점 수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영 글캠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통대의 경우 단과대 설립 당시 교수의 의견과 통번역 실력을 함양하는 데 높은 졸업 학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150학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병덕 설캠 교무행정팀(이하 교무처) 팀장 역시 학생들의 통번역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수 학점을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통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능숙한 현지 언어 구사능력 배양△소통과 상생의 인식 함양△해당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 과학적 지식 습득이라는 교육목표에 입각한 강도 높은 언어 교육을 표방



▲우리학교 하계 졸업 축하 플래카드

하고 있다. 학교 측은 통번역이라는 학문 특성상 현지 언어 구사력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어문계열에 속하는 우리학교의 다른 학과에 비해 16학점이 더 많은 최소 83학점 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졸업학점의 경우에도 134학점보다 많은 150학점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이수 학점을 부담으로 느끼며 졸업학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융인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 6월 설문조사 이후 해당 사안을 학교에 건의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설캠 제57대 총학생회장 배귀주(상경·국통 20) 씨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와 요구안을 작성해 교무처장 및 학생인재개발처장과의 1차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며 “졸업학점 축소 시 소급 적용도 함께 진행돼

야 함을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졸업 학점 축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급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졸업학점 기준을 종전에 비해 완화한 타 학교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실제로 경희대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졸업 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축소했다.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강 과목 수를 줄인 것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경영대학과 정경대학을 비롯한 다섯 개 단과대의 졸업 학점 기준을 기존의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였다. 중앙대 또한 융합인재 육성이란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이수학점을 140학점에서 132학점으로 낮춘 바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졸업 요건을 완화한 것은 학생들이 대외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전했다.

설캠 총학은 졸업학점 축소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 또한 융합 전공을 통해 융·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설캠 총학은 “졸업학점 축소는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다”며 “학점 및 전공을 넘어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학생이 우리학교를 발판 삼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문계열 학생들의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학교 측에 해당 자료를 전달했으며 학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에선 현재 전공 이수 학점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교무처에서 지난달 22일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 이수 학점을 줄이고 교양 학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더불어 우리학교는 타 대학의 교양과 전공 학점 체계를 참고해 교양 학점 비율을 상향시키고 교양 내 선택 비율 상향을 권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학교 측이 △학사제도 유연화△학생의 선택 폭 확대△학생의 전공선택권 강화 등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지유(서양어·스칸 23) 씨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공 학점을 축소하고 교양학점을 늘린다면 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심도있는 학습이 가능해질 것 같다”며 개선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설캠 총학과 교무처 회의 진행으로 과거부터 계속된 졸업학점 축소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효과적인 졸업학점 개선안이 실현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학교 기숙사식 운영 문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선

지난해 기숙사 학식(이하 기숙사식) 수요 부족 및 적자 문제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제10대 총사생회 발도동은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의 의무식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교 측에 전달돼 다음 학기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숙사식 폐지에 의견이 모

아졌던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지난 학기 기숙사식은 의무화로 전환됐다. 이에 식당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학교 기숙사식의 실태 및 문제점△기숙사식 문제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기숙사식 실태 및 문제점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측은 이번 해부터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기숙사 학식을 신청해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글캠 기숙사 흡스돔(HUFS Dorm)은 △64식△110식△160식의 학식 식권을 운영하고 있다. 64식이 기본 식이며 110식과 160식은 선택식으로 각각 단가가 △4,900원△4,700원△4,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각각 합계 △313,600원△517,000원△720,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기숙사식 비용 선정 기준에 대해 최태경 흡스돔 학사운영팀 팀장(이하 최 팀장)은 “지난해에도 단가가 4900원이라 올해에도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сал캠)에선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옥진호 우리학교 설캠 국제학사 운영팀장은 “학생들의 기숙사 식당에 대한 수요가 저조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인문관 학생 식당을 이용하거나 국제학사에 위치한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숙사식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흡스돔 학사운영팀 측은 기숙사식 의무화가 기숙사 식당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 등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지만 학생들은 기숙사 입사를 위해 학기당 강제적으로 30만 원에서 70만 원에 달하는 식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외대학보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학내 기숙사식 문제 인식 경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숙사식 의무화의 문제점에 관해 묻는 질문에 △환불이 불가능한 점(50%)△불공정한 면을 따는 점(25%)△경제적인 부담(21.4%)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지난 학기 사생이었던 남연우(동유럽·체코어 23) 씨는 “흡스돔 신 기숙사에 거주 중인데 관리비 120만 원에 기본 식비 30만 원까지 더하면 150만 원이 넘어 부담된다”며 “또한 정해진 시간대에만 기숙사 식당 이용이 가능해 못 먹는 경우가 잦고 식비 환불이 불가능한 것도 아쉽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 식당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는 추세다.

기숙사 식당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들도 있다. 구예빈(글자전 23) 씨는 “9교시가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었다”며 “1시간을 남게 기다렸는데 결국 재료 소진으로 인해 마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지난 학기 흡스돔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결식 비율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 1~2회(39.3%)△주 3회(28.6%)△주 5회(14.3%)△전혀 이용하지 않는다(10.7%)△주 7회 이상(7.1%)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사생들이 결식하는 이유로는 식단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63.6%)와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36.4%) 등이 있었다. 오한빈(국제지역·한국 23) 씨는 “기숙사 식당의 식단 질이 좋은 편도 아닐뿐더러 의무식 신청을 하더라도 배식 마감 시간이 항상 달라 먹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환불 기준이 불명확해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우리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문의한 학생에 대해서 110식과 160식을 환불해 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시랑(국제지역·중앙아시아 23)

씨는 “흡스돔 홈페이지에 기숙사 식비 환불은 자퇴나 휴학의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적혀있지만 생협 측에 문의한 학생에 대해서만 환불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엔 기숙사 학식을 전부 사용하지 못해 정가가 156800원에 해당하는 32식을 5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본래 비용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생협 측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식비 환불을 진행한 문제에 대해 정동근 우리학교 생협 사무국장(이하 정 사무국장)은 “중도 퇴사를 하거나 110식에서 64식으로 변경했을 경우엔 차액이 생겨 환불해 주기도 했지만 다른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항목	기숙사비		식비		보충금	사생회비
필수/선택	필수납부		필수납부		필수납부	선택납부
금액	제1기숙사 2인실	930,000원	64식(의무식) (단가 4,900원)	313,600원	30,000원	10,000원
	제1기숙사 4인실	600,000원	110식 (단가 4,700원)	517,000원		
	제2기숙사 2인실	1,224,000원	160식 (단가 4,500원)	720,000원		
비고	기숙사 호실, 각종 광열비 및 유지 보수비 등		자퇴/휴학자인 경우에만 환불 가능함.		시설 및 비치물품에 문제가 없을 시 퇴사 후 전액 환불	사생 문화, 축제 및 복지비용으로 사용

▲ 지난 학기 흡스돔 기숙사비의 구성 및 상세사항 표 (출처: 흡스돔 홈페이지)

◆기숙사식 문제 발생의 원인

지난해 우리학교 글캠 기숙사 흡스돔 학사운영팀에선 식비를 신청한 학생에 한해 단가 4,700원으로 책정된 110식을 운영하고 개별적으로 기숙사 식당 이용 시 4,900원의 식대를 지불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흡스돔 학사운영팀에선 사생들의 만족스러운 식생활을 위해 기숙사 식당 위탁업체와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의해 왔다. 흡스돔 학사운영팀에 따르면 “사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식당 이용 만족도 및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식사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흡스돔 측은 기존 위탁 업체인 삼성웰스토리(Wel Story)가 기숙사 식당 운영을 계속한다면 △식당 이용 감소△식자재 가격 상승△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흡스돔 학사운영팀에선 기숙사 식당 식사 질 개선과 휴일 식당 운영 재개를 위해 기숙사 식당을 우리학교 생협에서 직영하도록 하고 최소식인 주 4식을 도입해 식단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말에 잔류하는 학생들을 위해 주말에도 기숙사 식당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숙사식 의무화의 결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배식 시간이 지연되거나 조기에 배식이 마감돼 일부 학생들이 이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갑작스런 밀집도 증가로 인해

이용 불편이 초래된 것이다. 이에 생협 측은 △게시판 설치△배식대 추가△셀프 라면 코너 개선 등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기숙사식 의무화를 진행했던 타 대학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주목받는다. 앞서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기숙사 참성관(이하 참성관) 측은 지난 2014년까지 기숙사 식비와 식비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 봉룡학사(이하 봉룡학사) 측에선 지난 2012년까지 기숙사 입사생에게 한 달에 식권 60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단체 연합은 “기숙사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강제적 거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기숙사생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한 것은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며 “이는 거래강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두 학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앞서 시정명령을 받은 두 대학은 기숙사식 운영 제도를 변경했다. 지난 학기 참성관 측은 3일 동안 사생 중 선착순 140명을 대상으로 식권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기숙사 식당을 운영했다. 봉룡학사 측은 기숙사식 의무화 제도를 폐지한 이후로 기숙사식 신청자에 한해서만 식비를 지불하도록 하면서 기숙사 식당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최 팀장은 “의무식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학교는 주 4식이 기본식이기에 평균 주 10식을 운영하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들에게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최 팀장은 “앞으로 생협과 함께 기숙사의 본연의 목적인 학생 편의의 제고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준혁(웅인 23) 씨는 “우리학교 사생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숙사식 의무화 문제는 신속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환불 제도를 도입하거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식당 이용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조정 및 저녁시간 20분 연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며 “최소한의 기본식을 전제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숙사와 사생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타 대학교의 사례처럼 우리학교 기숙사식 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다양한 경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학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로 유학을 다녀왔다. 교환학생으로서 책이나 매체에서만 접했던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체감하고 앞으로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와 어떻게 그 나라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었다. 당시 대학교의 수업 시간이 길지 않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수업 일수가 주 3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 덕에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며 △현지 대학교 행사 참여하기 △현지 친구와 근교 놀러가기 △현지 택시 기사와 현지어로 대화하기 등 언어 및 문화교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교환학생으로 머무르는 기간 동안 시간이 많이 남아 유학생들과 자카르타 근교 카페와 맛집을 탐방하고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5개월간 두 나라의 6개의 도시와 섬 △말라카(Melaka) △반둥(Bandung) △발리(Bali) △족자카르타(Kraton Yogyakarta)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방문했고 △강스고공스바다 △숄스화산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발리에선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섬마다 가진 △문화 △생활양식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전공자로서 인도네시아를 몸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유학 생활을 통해 대단한 걸 얻고 배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고 현지에서의 삶 자체에 의미를 두고 즐기는 걸 추천한다. 현실적으로 한 학기 정도의 유학으로 비약적인 실력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었지만,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심리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건과 사고를 조심하느라 다소 예민한 상태를 지속해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운 날씨와 생소한 문화로 인해 속에 화가 쌓이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켜 생각해 보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했으면 어땠을까란 후회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나쁜 사람이나 상황은 없었고 좋은 추억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난 다양한 사람들과 친교



하는 경험을 많이하기를 추천한다. 타지에서 힘들고 지친 상황을 함께 이겨낸다면 잊지 못할 인연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학을 다녀온 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해외 유학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유학은 스펙이 아닌 경험임을 명심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상재 (통번역 · 마인어 20)

미국

<데드 하트>

-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방법 -



더글라스 케네디(Douglas Kennedy)의 데드 하트(Dead Heart)는 미국의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는 주인공 닉 호손(Nic Hoson)이 매일 반복되는 자신의 일상에 지칠 무렵 우연히 알게 된 호주의 오지 여행을 하며 겪게 되는 이야기다. 데드 하트는 죽은 심장 혹은 죽은 마음으로 번역되지만 이 소설 속에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호주의 황

무지를 의미한다. 또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무료한 일상을 보내며 권태에 빠져있는 주인공 닉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도 있다. 작중에 등장하는 울라누프(Ullanul)라는 마을은 주민들 자신만의 규칙과 법에 매몰된 편협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닉은 울라누프 마을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과 규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며 아이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모한 짓을 감행하면서 닉의 죽어있던 심장은 점차 다시 뛰게 된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닉이 마을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닉은 아무런 대책이나 목표가 없는 인물로 충동적인 여행을 떠나 스스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닉의 행동과 태도를 쉽게 변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닉이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고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지루와 권태를 대신 해소해준다는 점에서 희열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닉의 어리석음을 지각하면서도 완전히 미워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이 소설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죽어가던 마음이 닉의 다사다난한 여정을 보며 새삼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닉은 결국 최악의 여행을 경험했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뛰는 심장을 마주한 이상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언젠가 다시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도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지쳐갈 때 여행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여유를 만끽한다. 또한 낯선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기도 한다. 여행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얻을 수도 있다. 여행은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낯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한편으로 설렘과 기대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렇기에 죽은 심장을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여행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도심 속에서 지친 나날을 보내면서 작지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행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데드 하트를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임채린 기자 06chaelin@hufs.ac.kr

보건안보와 국부 창출의 길!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미래 먹거리이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안보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끝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낙후된 학교 시설, 낙담한 학생들

우리학교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에선 시설 노후화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노후화에 대한 개선이 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불편에 대해 건

의를 수합할 수 있는 기구나 체계가 부재하다. △우리학교 시설 낙후 현황△우리 학교 낙후시설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응△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낙후 시설 현황

우리학교 양캠퍼스에서 낙후된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퍼)의 경우 불만이 제기되는 시설물로는 △교수학습개발원 △화장실 △인문과학관 △농구대 등이 있다. 먼저 설캠퍼 교수학습개발원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가 부진한 상태며 계단에 있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조차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원의 지하 벽면과 천장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닥도 해졌으며 지하에 위치한 사범대학 과방의 입구엔 형광등이 4개 중 3개만 작동하고 있었다. 교수학습개발원 화장실 바닥은 노후돼 타일이 보수된 흔적이 있었고 타일 틈 사이엔 곰팡이가 퍼 있었다. 또한 화장실은 성별에 따라 층별로 분리돼 있어 학생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교수학습개발원만의 문제가 아니며 설캠퍼의 사회과학관과 인문과학관의 화장실도 층별로 나뉘어 있는 상태다. 마재운(아시아·이란어 23) 씨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수업이 있는 층에서 한 층 더 올라가야 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특히 화장실 입구의 경우 턱이 높아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은 접근이 곤란한 상황이다. 설캠퍼 인문과학관 지하 바닥면 곳곳은 깨진 상태며 벽면도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벽돌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선과 배수관이 모두 겹으로 드러나 있기도 했다. 농구대는 사용할 경우 삐걱거리고 녹이 슬어 낙후된 모습이 었다. 최선우(사회·정외 23) 씨는 “농구대를 사용할 때마다 불쾌한 소음이 발생해 농구대 사용이 꺼려지며 농구장 바닥이 파인 것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퍼)의 경우 △교양관 △도서관 △어문학관 △후생관에 시설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 교양관 후문에서 2층까진 경사로가 설치돼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후문으로 이어지는 보도엔 많은 균열과 잔해가 있었다. 장에 학생은 경사로를 통해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 이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양관 1층을 제외한 화장실은 낙후돼 벽면에 뜯어진 타일이 다수 존재했다. 대부분의 강의실 내부엔 먼지가 쌓이고 낙후된 라디에이터들이 있었다. 히터와 같은 난방장치를 개비하지 않은 채 노후한 시설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의 사용이 잦은 도서관의 경우에도 경사로가 2층까지만 있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도서관 2층부터 설치돼 있는 라디에이터 역시 쓰레기와 먼지가 쌓여있고 열람실 내부에 있는 라디에이터는 녹이 슬어 있었다. 화장실의 좌변기는 정상 작동했지만 바닥의 일부 타일들이 깨진 것이 보였다. 도서관과 후생관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방지 장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닳았으며 계단 곳곳이 깨지거나 부서져 있었다. 어문학관 내부는 보수 공사가 최근에 이뤄져 비교적 쾌적한 상태지만 사위실의 바닥 타일은 일부 깨진 상태로 방치돼 있고 곰팡이도 퍼어 있는 상태였다. 학생회관 옆에 있는 농구장은 바닥 면의 색이 바랜 것은 물론이고 농구대 역시 녹슬고 그물이 해진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구대 옆 의자들은 녹슬고 잡초가 무성해 사용이 어려워 보였다. 또한 건물 내 화장실엔 화변기와 좌변기가 공존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토로했다. 권혜승(응인 23) 씨는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는 화변기가 아직까지 학내 여러 화장실에 잔존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답했다. 학교 정문까지 이어진 길의 상태는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일부 보도블럭이 깨져 그 잔해가 주위에 산재한 모습이었다.

◆낙후시설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응

현재 우리학교의 시설물 관련 문제들에 대응하는 기관은 양캠퍼의 시설관리팀이다. 설캠퍼 시설 전담 관리팀에 따르면 학생들의 시설물에 대한 민원은 시설관리팀에 유선으로 접수되거나 해당 건물 안내실로 전달되는 방법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즉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시설물 보강 △시설물 보수 △그 외의 조치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건물 내·외부의 기계설비 부분과 전기 설비 부분은 업무 중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개강 전이나 기상특보 발생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들이 전 건물을 순



▲우리학교의 낙후된 시설들

회하며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설 수리 기준에 대해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를 실행한다”고 답했다. 글캠퍼 시설 전담 관리팀에 따르면 시설 관련 민원 사항은 관련 부서로 직접 접수되거나 총학생회 정기총회를 통해 접수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 사항은 당일 처리가 원칙이지만 공사가 필요한 업무는 예산 등의 이유로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시설 수리는 학교 집행부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학교법인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의 각종 시설관리는 시설관리팀 직원과 건물별 △경비 △기술 △미화 전문가들의 청소와 순찰 및 유지보수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 건물의 △계단 △냉난방 시설 △화장실은 건물별 미화 근무자가 청소와 관리를 맡고 있다. 냉난방 시설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기술 담당자에게 점검 수리 의뢰를 요청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기술 및 영선 담당자가 점검과 수리 의뢰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팀이 주관하는 안전 점검역시 매달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학교 측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설치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양관 엘리베이터 설치 △각 건물에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가 그 사례다. 하지만 여전히 △어문학관 △인문경상관 △후생관 등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대학교의 낙후 시설 개선 방안을 주목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건의함이 있어 학생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구축돼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회에서 익명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학생회장과 학교 측에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숭실대학교는 총학생회 산하 시설관리국이 존재해 인스타그램(Instagram) 메신저나 오픈 채팅방으로 시설 관련 제보를 받고 총학생회에서 이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는 총학생회에서 캠퍼스 시설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해결하는 일까지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타 대학교에선 총학생회에서 시설물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의받아 해결하거나 학교 측에서 직접 학생들의 건의를 받는 형태로 시설 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 학교 측도 이러한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활용해 시설 이용 불편함과 관련된 학생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학교 설캠퍼 총학은 △교내 강의실 △기숙사 △휴게시설 등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개선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설캠퍼 총학 공식 소통 창구인 △이메일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거나 우리 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학교 본부와 함께 시설 낙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학사 내 휴게실 △기숙사 시설 낙후 △라디에이터·보도블록 교체와 같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편 사항에 대해선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교과 소통하며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설캠퍼의 경우 학생들의 불만을 수용해 도서관을 보수 공사한 경우가 그 예시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학습개발원 1층 보수 공사 △학생 쉼터 △화장실 공사도 이뤄졌다. 또한 이번 해 하계방학 기간 화장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가 이뤄졌다. 글캠퍼의 경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양관 계단 보수 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도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받아들인 결과다. 인문경상관에선 학생 쉼터와 화장실 리모델링도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완공된 백년관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건설된 건물이다. 학교 측은 현재 학교 부처와 학생 간의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창구를 학교 홈페이지 내에 신설할 예정이다. 교내 시설 낙후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금 점차 낙후되는 학교 시설물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두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논란의 새만금 잼버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

지난 1일 전라북도(이하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가 개최됐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6년간 지원 받은 예산은 1,000억 원에 달했다. 이같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잼버리 대회장은 불완전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여가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

졌다. 게다가 대회 기간 중 일어난 여러 사건으로 인해 대회 참가국 중 일부가 조기퇴영 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대내외적으로 가선 비난 여론에 부딪혔다. 이에 △새만금 잼버리 진행 과정 및 문제점△잼버리 사태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새만금 잼버리 진행 과정 및 문제점

지난 1일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한 잼버리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약 4만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가한 스카우트 대회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지난 2017년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전북 부안군을 개최지로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잼버리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공식 출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이에 여가부와 지자체는 6년에 걸쳐 1,082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여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잼버리는 세간의 우려를 사게 됐다. 당시 국정감사에 따르면 거액의 지원금과 충분한 대회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회장 내 기반시설 공정률은 37%에 그쳤다. 이는 잼버리 대회 개최 직전에도 개선되지 않아 완공된 운영본부 건물을 제외한 대회장에 정립되지 않은 잡다한 건축자재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가부는 흑시 모를 온열 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측에선 확실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잼버리가 개최된 첫날 만에 400명에 달하는 온열 환자가 속출했다. 온열 환자를 수용할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온열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천막 아래 방치됐다. 이에 임시방편으로 공무원들과 각국의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사비로 얼음물을 구입해 잼버리 대원들에게 보급했을 정도로 상황은 열악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여가부는 국정감사에서 병충해에 대한 여가부의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에 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제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잼버리 진행 당시 ‘썩딱 지개미만날개’ 등 해충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 병충해로 인해 잼버리 대회에서 총 633명의 환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모기에 의한 피해 역시 심했다. 포르투갈 보이스카우트 인솔자 하카르두 이자이아스(Ricardo Isaías)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모기와 폭염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대회장 내 배수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한 텐트 주변의 물 웅덩이와 질척거리는 땅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샤워 시설이나 상수도 같은 부대시설도 부실해 참가자들의 고충과 불만은 더욱 가중됐다. 스웨덴 스카우트 대원 A군은 “식수대 옆에 쓰레기장이 있었으며 주변 환경이 전혀 위생적이지 않았다”며 대원들이 더위를 식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부실한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인원 관리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다. 잼버리는 대외 규정상 14세 이상부터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잼버리 참가인원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실적을 높이기 위해 14세 미만 대원들을 다수 참가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규정상 참가 자격이 없는 14세 미만 대원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의료보험은 물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음에도 자격 미달의

대원들을 잼버리에 참가시킨 것이다. 또한 허술한 인원 통제로 여자 사위실에서 남자 스카우트 지도자가 샤워하는 사건이 발생해 성범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잼버리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줬고 세간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 관련 공무원들이 작성한 예산 목록이 부실하게 기재된 부분이 발견돼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행정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담당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언론의 취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잼버리에 관한 각종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면서 잼버리 운영을 관장한 여가부와 관련 지자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새만금의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지했던 잼버리가 실패하면서 △갯벌 파괴△수질 오염△어획량 감소 같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새만금의 환경문제가 역시 대두되고 있다.

◆잼버리 사태의 원인

이번 잼버리 사태는 담당 부처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잼버리가 개최된 시기는 한여름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온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이를 간과해 온열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나서야 얼음물을 보급하는 등 다소 부족한 대책과 미봉책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

기반시설의 불비로 인한 의료시설 부족도 온열 환자 대응에 악영향을 줬다. 병충해 문제와 배수 문제 역시 기반시설의 미완성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다. 당시 잼버리 대회장엔 450억 원이 쓰인 운영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가 끝나지 않아 대회장은 사실상 배수로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결국 여름의 습한 날씨에 배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모기와 같은 여러 해충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잼버리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지나친 실적 추구도 있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잼버리에 자격 미달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참가시키는 판단을 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는 간부들이 연맹 측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호도해 14세 미만 학생들을 잼버리에 참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판단은 원활한 대회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 늘리기를 위해 참가자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와 방만한 예산 운영이 사태를 악화시킨 상황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직위에선 운영비로 집행한 740억가량의 내역을 △사업비 656억 원△인건비 55억 원△운영비 29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사업비 656억 원 중 368억 원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잼버리 관

련 해외 출장을 나신 공무원들의 예산에 관한 비리 의혹 또한 큰 공분을 샀다.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 중 대부분이 보고한 것과 달리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대두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잼버리 홍보 명목으로 상해 출장을 다녀온 부안군 공무원 13명은 홍보와 무관한 유람선 관광 체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버킹엄(Buckingham)궁전 관광△손흥민 경기 관람△온천 방문△와인 시음△파리 디즈니랜드 관광 등 잼버리와 무관한 여행을 다녀왔다.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유출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해 여가부와 관련 지자체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된 체제에선 집행위원장이 주무책임기관이 된다”며 “전북지사가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고 여가부 장관은 보조기관이자 지원기관일 뿐이다”고 전했다. 이에 전라북도청 고위관계자는 “우리 측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권 등에서 잼버리 파행을 대부분 우리 책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영국 스카우트팀 중 한 명은 진 맥켄지(Jean Mackenzie) BBC 서울 특파원에게 퇴영을 결정한 원인이 폭염뿐만 아니라 시설과 음식 때문이라고도 전하며 이들은 캠프장 화장실이 건강상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음식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국 잼버리 대원의 불만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국가의 스카우트 팀은 중도 철수하고 항의를 하는 등 국제 사회의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이전 개최지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온열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완공된 대회장과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잼버리 대회를 끝마친 바 있다.

이런 졸속 행정 문제와 예산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2월 KBS는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강조하는 취지로 진안군 예산분석 보도를 한 바 있다. KBS는 지자체 공직자 업무추진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고원예산공작소’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시민들이 시민단체 등을 만들어 평소애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졸속 행정과 예산 낭비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근절되고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잼버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행정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갖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때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다가오는 오염수 방류, 여론은 엇갈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17일간 방류해 단기간에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은 선동이 아닌 과학으로 지켜야 한다”고 대응했다.

사회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정부 해결책 발표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며 교권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지난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교사는 학부모 민원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단순한 민원은 시 챗봇을 통해 처리되며 그 외의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이 각각 대응하게 된다.

경제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내수 활성화 가능할지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0일 우리나라 등 78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사드 사태 여파로 단체관광이 중단된 이후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관련 업종 주가 상승과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어나면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0.06%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무리한 쇼핑 일정을 강요해 여행 만족도가 낮다”며 “쇼핑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할 관광 콘텐츠가 부재하다”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지적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제 브릭스, 13년 만에 11개국으로 확장해

지난 24일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BRICS)가 11개국으로 확장했다. 기존의 브릭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으로 구성됐다. 브릭스에 새로 가입한 6개의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이란△아랍에미리트(이하 UAE)△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다. 외신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러시아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미국 등 서방 세력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인 G7을 넘보는 거대협의체가 생겼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한·미·일 정상회담 등 3국의 높은 결속력이 중국에 위화감을 조성해 브릭스 확대를 촉진했다는 분석이다.

한·미·일 안보 협의체 창설, 협력의 새로운 시대 개막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은 각국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 협력체 구상이 본격적으로 공식화됐음을 선언했다. 이번 협력은 한·일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 평화를 이룩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적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한·미·일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 관계의 정례화가 과연 안정적으로 정착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만해협 의 긴장△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북한의 핵전력 고도화 등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진아 우리학교 LD학부 교수를 만나 한·미·일 안보 협의체에 담긴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김진아 우리학교 LD학부 교수

Q1. 미국은 우리나라 국제 외교에서 빠질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최근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동맹 시스템은 유럽과는 달리 집단 안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양자 동맹이 미국을 중심으로 묶여있는 바퀴살(hub-and-spoke)동맹*의 형태를 띠죠. 이 중 한·미와 미·일 동맹이 공동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경우 한·일 협력의 축이 작동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돼요.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아시아 내 동맹을 한 데 묶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미국이 지금을 한·일 관계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Q2. 한·미·일 협력체 창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가속화 움직임에 이어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는 데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국제사회는 최근 동북아에서 한·미·일 남방협력과 북·중·러 북방협력의 양극화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그룹 안에선 서로 끌어들이는 상호작용과 서로 밀어내는 상호작용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고 있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배경도 지난 7.27 전승절을 기념으로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중·러 밀착 행보가 가속화되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어요. 군사·외교적으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은 양극화 상황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 해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회로 삼고 있죠.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논의에 적극 반대하고 있기에 북한은 안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한 이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Q3.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돼온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군사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을 향한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러시아△북한△중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북·중·러 각국의 반응은 마치 사전에 조율한 듯 유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대결적인 성격을 띤 합의이며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죠. 중국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 주변국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진영대결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언급했어요. 북한은 더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합연습 강화를 논의한 만큼 북한의 지역 정세 인식도 적대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이 △대잠수함 연합연습△대공△미사일 경보 등을 정례화하기로 한 만큼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연습이 잦아지면 북한의 대응 행동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한·미·일 삼국이 상호 양자에서 다자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정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삼국의 공동 지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거 미·일 동맹의 협력 범위가 중국을 포함한 지역 안보 문제로 다소 포괄적이었던 반면 한·미 동맹의 주요 의제는 북한과 한반도 방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및 발전시키고 있어요. 세 나라의 전략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만큼 협력의 범위와 폭을 한반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한 것이죠. 인도·태평양 전략의 원칙은 공동의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협력입니다. 즉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나 국제법 위반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죠. 이에 의하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및 경제적 강압 행위△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중국의 남중국해 등이 공동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 및 세계적인 안보 문제에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Q5. 한·미·일이 ‘동북아판 쿼드(QUAD)’라 불리는 안보 협력체 형성을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각에서 사용하는 ‘동북아판 쿼드’는 아직은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을 쿼드에 비교하지 않아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의 국가가 지난 2004년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기후변화△보건의△인도주의 지원△인프라 투자△재난구조 등 인간안보와 관련된 협력 논의를 주로 다루죠. 무엇보다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안보 위협이 되는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미국의 군사동맹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쿼드를 통한 안보협력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요. 미국은 쿼드와는 별도로 한·미와 미·일 동맹을 동북아 지역 성격에 맞는 협력체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Q6. 한·미·일 안보 협의체는 인공지능과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논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간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이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하고 자금세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을 만드는 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의보를 게시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왔어요. 한·미·일 간에도 가상화폐 탈취를 비롯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정보공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사이버 대응 협의체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의 핵심과제인 첨단기술분야 협력엔 인공지능 분야도 포함돼요. 현재 AI의 군사적 응용 문제를 두고서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은 AI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러한 규제의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

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AI 윤리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국제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

Q7. 커트 캠벨(Kurt Michael Campbell)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지난 16일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Think Tank Brookings)연구소와의 대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3국 관계를 구축하는 야심찬 일련의 행보를 보게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의체의 제도화·정례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최근 미국이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불안감은 한·일 관계 개선과 이로 인한 한·미·일 협력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죠. 이에 따라 제도화가 불리울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을 기대하며 한·미·일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기조를 향후 각 3국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큰 변화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열렸던 3자 국방 대화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이를 각국 정상 수준에서 재확인한 것이죠.

Q8. 정부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보협력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즉 동맹을 강화하면 원하지 않는 타국의 분쟁에 연루될 우려가 커지고 동맹이 약화되면 자국에 중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방기될 우려가 커집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처럼 한반도와 아시아에 긴장 수위가 높고 국제사회가 북·중·러 안보협력을 견제하는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동맹 강화가 우선시되게 되죠. 그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 체계에서 ‘약한 고리’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아온 만큼 반대 진영이 그 ‘약한 고리’를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평상시 협력 대화와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게 되면 위기시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다자 지원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퀴살 동맹(hub-and-spoke): 미국이 △일본△태국△필리핀△한국△호주와 체결하고 있는 5개 동맹. 탈냉전기에 개별 동맹의 다자주의적 연계와 동맹국의 특정 위협에 대한 역할 증대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로 구성됐다.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과거에 만들어진 △구조△규칙△제도 등 한번 일정한 제품이나 관행에 익숙해져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비효율적으로 되더라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지난 1학년 1학기를 보내면서 내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우연히 외대학보 수습기자 모집 글을 접했다. 내 꿈 중 하나인 기자라는 직업을 대학에서 미리 체험하고 우리학교 학생의 대변인으로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면 대학 생활 중 그 어떤 활동보다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겠다고 생각해 외대학보 수습기자에 지원했다.

지난 5월 외대학보 수습기자 선발을 위해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외대학보 수습기자 시험에서 생애 첫 기사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까지 봐온 기사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일주일 뒤 면접시험이 다가왔다. 당시에 면접관이었던 외대학보 선배 기자는 사회 문제와 우리학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그땐 훗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수습기자 활동 중 내 감정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기사 읽기를 좋아하나는 나였기에 당연히 기사도 잘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었다. 그러면서 많은 제언서를 작성했고 선배 기자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을 땐 많이 당황스러웠다. 내가 이 제언서를 쓰기까지 들어온 시간과 약간의 과정을 보태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학보 사실에 들어왔을 때의 감정 그리고 선배·동기 기자와 만났을 때의 설렘은 익숙해지고 있는 반면 제언서가 거절당할 때의 감정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내 제언서가 반려될진 알 수 없고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그러한 과정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 거라 생각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장담할 순 없지만 나 자신이 성장하리라 믿는 것엔 확신을 갖고 있다.

인간은 타인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내거나 결과물을 보는데 있어서 숨겨져 있는 정보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제3자는 당사자가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출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감히 예측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보에 실린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 외대학보 구성원의 노력을 심분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외대학보 기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 학기가 다가왔다. 지난 한 학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하다. 내게 지난 학기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외대학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누군가에게 성장 혹은 후퇴의 시간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가만히 있는 것 보단 의미 있는 시간임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후퇴하는 경험을 통해 훗날 더 멀리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그 시간이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학기도 앞으로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권오건 기자



[책 ‘사피엔스’를 읽고] 인류, 역사 그리고 정치

인류는 처음부터 현생 인류와 동등하지 않았다. 현생 인류는 처한 환경에 대응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차원적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보했다. 현생 인류와 원시 인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맞는 법과 내부적인 규율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이익 혹은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의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기에 협력과 협동으로 이어지며 민족이라는 개념 또한 파생시킨다. 이러한 과정 중에 신석기 시대의 농업 혁명이 시작되고 청동기 시대엔 사적인 소유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인류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라는 수직적 계급 질서와 불평등에 직면하게 된다. 계급 질서는 피지배층의 불만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도 그들에게 불평등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는 역효과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이 ‘정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난 정치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쟁이다. 우선 전쟁이 가능하기 위해선 △국가△국민△영토가 수반돼야 한다. 국가는 한 부족·사회 공동체가 △규율△문화△법△전통 등과 같이 일정한 가치를 공유한다. 또한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군집인 국민의 안녕을 영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전쟁은 내부 분열로 인한 내생적 전쟁과 생존 혹은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다른 국가들에 의한 침략적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했다시피 전쟁은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곧 국민의 주권이기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국가로부터 국가의 주권이 위

협받아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위기에 놓인다면 반드시 대응해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국가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희생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며 여러 이상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한 국가를 ‘혼돈’의 상황으로 빠뜨릴 여지가 충분하다 때문에 누구든 전쟁을 회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다. 정치는 한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갈등이 뒤따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합의에 다다른 데에 있어서 갈등은 합리적이다. 갈등은 한 의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 사회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는 어떠한 선택을 하나에 따라 그 집단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달레마적인 요소가 상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인간의 조건에 있어 마침내 약간의 실질적 진보를 이룩했다. △기근△전염병△전쟁이 줄어들었다. 그 예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한편 오늘날 당면시 여겨지는 △국가와 국민의 주권△권리△자유라는 가치가 인류에게 대부분 자연스레 다뤄지고 심지어는 선택의 문제로 치부되는 데까지 많은 역사적 사건이 수반됐다. 역사는 흔히 옛날 문제라며 현시대의 잣대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고 또 어떻게 변화하며 그들이 정한 이상적인 국가의 틀을 완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담론의 장을 형성하며 구성해야 할 것이다.

성민욱 기자 07minwook@hufs.ac.kr

[영화 ‘카트’를 보고]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에 대해

영화 ‘카트’는 지난 2014년에 개봉한 우리나라의 노동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관객에게 강한 흡인력을 행사한다. 먼저 이 작품은 한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부당 해고를 시작으로 전개된다. 노조의 의미조차 몰랐던 마트 직원들은 그저 성실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만 본사가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본사는 마트 직원을 용역 소속으로 바꾸겠다고 위협하며 회사와 마트 직원 사이의 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한다. 이들에게 용역 소속이 된다는 것은 곧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회사는 비정규직 직원이란 이유로 이들을 해대했고 마트 직원들은 계약기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마트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장기간에 걸친 접거와 농성을 이어 나가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끊임없이 외쳤다.

영화를 보면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기 전부터 얼마나 해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마트 직원을 관리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이들을 ‘아줌마’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초반부의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수당 지급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후에도 회사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거듭된 협상 제안에서도 회사는 협상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다. 궁지에 내몰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론과 경찰도 이들을 비난하기에 바빴다. 회사는 노조 지도부를 맡은 3명에게만 정규직 전환이란 유리한 제안을 내걸며 노조의 내부 분열을 유도해 와해시키려 했다. 그렇게 영화는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기업과 사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운 장면만 연출돼 관객들은 해피엔딩과 같은 반전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무색하게도 영화는 노동자가 경찰에게 물 폭탄을 맞으면서 시위하는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노동자 인권운동의 결말은 현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사건에선 노조의 저항 끝에 노조 지도부 3명이 해고되고 나머지 직원은 다시 복직했다고 한다.

우리는 누구나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득 수준이나 직급과 무관하게 노동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는 영화가 전달하고자 의도한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더불어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저조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미 우리나라 노동법에선 노조가 회사에 협의를 요구했을 때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부당 해고는 불법 행위임이 잘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국제노동총(ITCU)이 지난해 전 세계 148개국의 노동권 수준을 평가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권리 지수(Global Rights Index)’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엔 교사의 연이은 자살 사건으로 계속해서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 국가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권 침해를 받는 노동자가 외면받지 않고 모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고대해 본다.

김나림 기자 07narim@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3년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활동내역 2023년 2학기 외대학보 1082~1087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모집기간 9월 1일(금)까지
-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 ◆문의 서울캠퍼스 남우현 기자 010-2101-1877 / 글로벌캠퍼스 이지윤 기자 010-5830-7079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모두의 시작을 응원하며

뜨거웠던 여름방학을 뒤로하고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돌아왔다. 방학 동안 텅 비어있던 캠퍼스는 언제부턴가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의 인파로 채워지고 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개강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곤 한다. 시작은 설레면서도 불안하다. 이러한 양가감정을 조화롭게 섞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한다. △새로운 동기△동아리 △수업이 주는 양가감정을 소화해내려는 노력을 한다면 새 학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외대학보도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부터 준기획과 후속보도 면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는 학내 사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고안됐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대학보 독자가 학내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 주길 소망해 본다.

개강을 맞이하기 전 우리학교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을 거친다. 하지만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 수업이 어떤 강의실에서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도 존재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방침이 조속히 생겨나길 바라본다.

우리학교는 타 대학과 비교해 높은 졸업 이수 학점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선 완성도 있는 교육을 위해 필수불가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 간 의견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이 발견되길 바란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기숙사 학식(이하 기숙사식)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숙사식 품질△불규칙한 이용 시간△혼란스러운 기숙사식 환불 규정에 불편을 겪고 있다. 기숙사식은 기숙사생 생활의 많은 부분을 관장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외대학보 개강호는 학기의 시작과 함께 발간된다. 새로 발행되는 외대학보가 시작을 맞이하는 모든 학내 구성의 곁에 서 있길 소망한다. 모두의 시작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조수빈 편집장 05subi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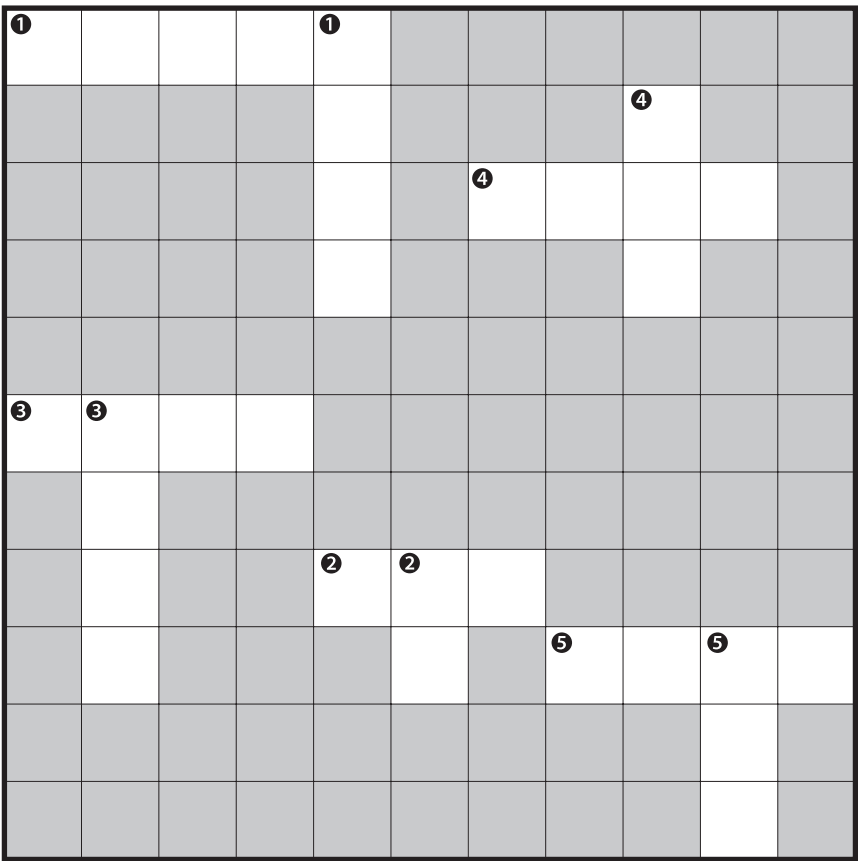
1083호 부엉이 메신저
외대학보가 당신의 고백을 기다립니다!

한 호엔 4명의 메시지가 실릴 예정입니다.
1083호에 들어갈 메시지는 8월 26일(토)부터 9월 5일(화)까지 모집합니다.

- ★차마 하지 못 했던 말
- ★외대학보에 실고 싶은 내 진심
- ★응원 메시지
- ★익명 및 실명 참여 가능

- ◇모집기간: 8월 26일(토)~9월 5일(화)
- ◇지원방법: 05subin@hufs.ac.kr로
1)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과
2)외대학보에 실렸으면 하는 메시지 3-4줄을 보내주세요.
- ◇혜택: 참가자에게 추천으로 두 사람에게 영화표 2장씩 제공
- ◇지원자격: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문의: 조수빈 편집장 010-8646-4606

십자말풀이



- 가로**
1.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간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 여름학교를 개최했다. (1면 참조)
 2. 우리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선 미취업자를 위한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면 참조)
 3. 우리학교는 ○○○○협력센터와 공동으로 '2023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를 진행했다.(2면 참조)
 4. 우리학교 지역특화 ○○○○전문가 양성사업단의 명칭은 GTEP 사업단이다.(2면 참조)
 5. 우리학교 학생들은 ○○○○ 전에 강의실을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3면 참조)
- 세로**
1. 지난 1일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캠버리가 개최됐다. (8면 참조)
 2. 작품 데드 하트 속 울라누프(Ulanu)라는 마을은 주민들 자신만의 규칙과 법에 ○○된 편협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6면 참조)
 3. 우리학교의 대표 언론으로 1955년 창간 이후 우리학교의 역사를 기록해 온 기관이다. (1면 상단 참조)
 4. 지난해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선 기숙사식이 ○○○되었다. (5면 참조)
 5. 우리학교와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2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죽음도 많았다.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상기후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만이 바트 심슨이 “올해는 내 인생 최고로 더운 여름이야”라고 말하니 아버지 호머 심슨이 이렇게 대답한다. “올해는 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야”라고 재치 넘치는 아버지의 대답을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는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산불, 홍수 등 이상기후로 고통 받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실감나게 목격하고 있어서다. 기록적 폭우, 기록적 폭염, 기록적 산불이라는 말 속에서, 불탄 마을과 침수된 도로를 비추는 사진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비극이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안다. 불과 8년 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가 경고한 ‘뉴 노멀’(new normal) 기후위기가 더 이상 새로운(new)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재난 앞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감정은 불안, 두려움, 무력감이다. 인류애를 앞세운 공동의 감각과 사회적 자산, 제도적 안전장치를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우리의 일상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각자도생의 세계는 매일이 아슬아슬하다. 기후재난 외에도 점점 잦은 형태로 나타나는 ‘물집 마 폭력’은 또 어떤가. 큰 불안 없이 걷던 길이 위험하다. 우리 사회가 힘겹게 쌓아올린 가치들이 무너지고, 우리는 희망보다 절망을 더 쉽게 이야기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이 계절,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무엇이 가장 화급한 문제인가? 학령인구가 대폭 줄어든 현실에 적절한 대비책을 만들기도 전에 대학들은 저마다 위기 앞에서 떨고 있다. 빠져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속수무책, 알 수 없는 미래이기에 답을 제시하기 힘들다.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에 이런저런 묘책을 궁구하는 여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지난 삶을 한가롭게 반추하는 감상이 아니다. 기후재난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엔 인구절벽이라는 사회적 위기가 닥쳤다. 이 땅이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인 동시에 대학의 존재론적 질문이기도 하다. 학생은 왜 대학에 오는가? 대학에서 무얼 배우는가?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그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대학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교/강사들과 직원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대학의 수명, 지식의 수명은 어떻게, 무엇이 결정하는가?

과거, 사회의 가치 전반에 대한 단단한 토대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던 대학이 오늘날 먼 얘기가 되었다 해도,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위축되었다 해도, 이상과 현실을 함께 바로 보는 시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묻는 것은, 단순히 기후재난 시절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학생들을 잘 길러내야 하는 대학의 현실적 고민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유하는 일이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적 자산을 축적하는 대학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직면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지역과 국경을 넘어 이 세계에 다친 재앙들과 이를 대비하는 실천적 과제를 대학이라는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입하려는 노력도 이 질문 안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인문학이나 평화인문학, 의료인문학, 치유인문학, 디지털인문학 등 융/복합적으로 새로이 상상되는 학문이 대학의 교육 체제 안에 깃들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도 이 질문 안에서 더 중요해진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이미 재앙이 된 환경위기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0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없다면? 이런 질문조차 무의미해진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설계해야 한다. 하여 이번 학기엔 이 지면을 통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들을 발굴하자는 다짐을 해본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교실에서 시도하는 일, 하루를 기쁘게 사는 방법, 기운 없어 처진 이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주는 일, 지금-여기를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은 많다. 일단 우리,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고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므로. 무엇이이라도 함께 하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 것이므로.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5sub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조수빈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스포츠 경기를 언어로 각색하는 언어술사
MBC 스포츠 플러스

김원석 아나운서를 만나다

뉴미디어 시대 속에서 아나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광 받는 직업 중 하나다. 특히 스포츠 캐스터는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비롯한 모든 순간을 언어로 각색한다는 점에서 언어술사라고도 불린다. 김원석(인문·언어인지과학 15) 아나운서(이하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2월 입사해 MBC 스포츠 플러스 소속 캐스터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스포츠 중계 외에도 개인 유튜브(YouTube)를 운영하며 아나운서를 넘어선 아나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자세로 시청자를 마주하는 김 아나운서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언어인지과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나운서라는 진로를 정해서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다 언어인지과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언어인지과학과에서 언어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우면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Q1-1. 대학 시절 경험했던 인상 깊은 활동이 있나요?

새로미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회장단까지 역임했기에 저에게 더욱 의미가 각별하죠. 1학년 땐 글로벌 캠퍼스에서만 생활했는데 새로미 활동을 통해 서울을 오가며 더욱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죠. 또한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돼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Q1-2. 교내 활동 이외에도 다른 대외활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미 활동을 끝마친 후 가장 재밌어 보이는 대외활동 위주로 참여했어요. 스포티비(Spotv)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롯데 서포터즈를 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스포츠에 흥미가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2. 스포츠 캐스터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렇기에 매주 야구 경기를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중계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에서 출발해 스포츠 캐스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됐죠.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꿈을 확장했다가 지금 직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Q3. 스포츠 캐스터는 소수의 인원만 채용하기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의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과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캐스터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란 직업 자체가 사랑을 적게 뽑아요. 그럼에도 준비하면서부터 1000:1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란 제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할 땐 학원을 다녔고 학원이 끝난 후엔 친구들과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스튜디오를 함께 병행했죠. 면접과 리딩을 포함한 하루 일과를 철저히 계획하기도 했어요. 아침 일찍 기상해서 무조건 시간 단위로 할 일을 계획한 거죠. 하루종일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생활습관이 망가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앞서 3개월간 습관을 잘 쌓아놔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이러한 모든 요소가 한데 모여 합격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4. 스포츠는 보통 평일 이른 저녁부터 경기가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캐스터의 구체적인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전 주로 야구 중계를 담당하다 보니 평일 저녁 6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 후 저녁을 먹고 프로듀서와 내용과 구성에 관해 회의하고 경기 시작 후엔 경기 상황을 정리해 기록하죠. 퇴근은 방송이 끝나는 11시쯤에 할 수 있죠. 직업 특성상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많이 있다보니 퇴근 후에도 계속 각성 상태가 이어져 잠이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3시까지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잠에 들어요. 그리고 아침 9시에 기상해 집안일과 운동을 한 후 다시 출근하곤 하죠. 이러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Q5. 스포츠 아나운서와는 다른 스포츠 캐스터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포츠를 매개로 대중에게 짜릿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기다려주는 사람과 시청 인증을 해주는 사람을 볼 때도 뿌듯함과 함께 다시 한번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Q6. 스포츠 캐스터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

람찼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이 각각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야구 종목엔 특히 열광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웠던 순간은 족구 현장 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어요. 매우 인상 깊은 상황을 놓치게 됐을 때 사우팅으로 표현해주면 좋았을텐데 해설위원과 말을 하느라 그 상황을 놓친 게 매우 아쉬웠죠. 부연 설명만 했던 게 제 입장에서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이후 현장 중계에선 무조건 상황 위주로 중계할 것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Q7. 지금까지 해오신 수많은 중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부산 출신이라 롯데 자이언츠(Giants) 팬인데 이대호 선수의 은퇴 경기에서 하이라이트 더빙을 했어요. 가장 좋아했던 선수의 은퇴 경기의 중계를 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어요. 준비를 하면서 박차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본 경기에선 정신을 다잡고 평정을 유지했죠. 그 순간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Q8. 아나운서님께서 가장 중시하시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머물러있지 말자’라는 가치를 마음 속에 항상 새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안주하지 말고 부족함을 매우기 위해 노력하자’가 좌우명입니다. 안주하게 되면 정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간이라도 대중 흘려보내기보다 분석하고 피드백을 했을 때 향상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자고 많이 다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죠.

Q9. 유튜브를 운영하신 경험이 현재의 직업에 도움이 되셨나요?

유튜브를 시작할 땐 영상 편집을 할 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방송에 관한 직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큰 도움으로 작용했습니다. 편집

과정을 직접 겪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방송 제작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파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듀서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죠. 방송에 대한 요구사항을 프로듀서에게 전달하는 것도 아나운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만들었던 경험 덕분에 일에 대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Q10. 스포츠 캐스터를 꿈꾸고 있는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캐스터가 되길 희망한다면 우선 도전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는 공급이 없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엔 캐스터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혼자 중계를 했던 경험이 좋은 거름이 됐어요. 경기를 볼 때 내가 캐스터란 마음으로 중계를 보게 되면 색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화를 시도했던 게 어쩌면 합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이유가 스포츠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면 그 애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하다 보면 그 애정이 식을 수도 있지만 한번 고비를 극복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으니 힘든 시기를 잘 버티길 바랍니다.